◉연중 제 22주일 강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밀치며 자리다툼을 하는 것을 안쓰럽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루카 14,11).

그리고 집 주인인 바리사이에게도 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루카 14,13-14).

오늘은 예수님의 낮추는 이가 되라는 말씀과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라는 이 두 가르침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맹사성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학문으로 19살에 장원 급제를 하고 20살에는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된 사람으로 어린 나이에 승승장구를 해 그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파주 군수로 가 있던 어느 날 맹사성은 한 고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 고을을 다스리는데 어떤 덕목을 최고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스님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십시오."

그 말에 맹사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인데 이렇게 먼 길을 온 저에게 그 말씀밖에는 할 것이 없으십니까?"

그 말에는 대꾸가 없던 스님이 녹차나 한 잔 하고 갈 것을 권하자 맹사성은 마지못해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찻잔에 녹차를 따르던 스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찻물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넘친 찻물로 방바닥이 금방 흥건해졌지요. 화가 난 맹사성이 스님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이시오? 지금 나를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스님이 빙긋이 웃으며 한 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찻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그리 모르십니까?"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시뻘개진 맹사성은 그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가 그만 방문에 머리를 찧고 말았습니다. 그 때 스님이 또 한 마디를 조용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치는 법이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를 숙이면 부딪칠 일이 없습니다. 꼿꼿이 머리를 세우고 상대방에게 숙일 것을 요구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줄줄이 부딪히게 되지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루카 14,11).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초대한 바리사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루카 14,13-14).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리사이들처럼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우러지기를 좋아하지요. 낮은 계층 사람들과의 접촉을 불편해하며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득이 안 되는 사람과는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우리는 참으로 영악하게 되돌려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빌려주고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과의 친교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알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나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며 내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루카 14,14).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말씀과 되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풀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양 신부(오금동본당 주임)

세가지 중요한 것들…

어떤 사람이 성자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뇌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9월 순교 성월 기도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울뜨레야 모임(오늘 미사후)

장소: 노재현 형제 보습학원 (519-342-0351)
(101 Hazelglen Dr. Unit 17 Kitchener)

◉ 확대 사목회의

이달 말 본당 신부님 한국 방문 관계로 정기 사목회의 일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장소: 박용대 형제 자택(T.519-620-7215)
11 Light Dr. Cambridge

▶일시: 9월 9일 미사 후

▶대상: 사목위원 전체 (구역장 포함)

◉ 바뇌기도회 모임

▶일시: 9월 5일 오후 7시 30분/ 김근효 형제 자택

◉여성 꾸르실료주말 251차 참가

▶일 시: 07년 9월 20(오후6시)-23일(오후6시)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참가비: $280
▶신청마감 :9월 2일

▶신청및 문의 : 김현태(요셉)간사

◉ 책 주문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서적을 본당에서 이번에 주문코저 하오니 책이 필요한 교우는 책 제목과 주문자 성명을 적어 빠른 시일 내에 **선교부장(박재영 형제)**에게 신청 바랍니다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다.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 택종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9월 4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22주간 화요일
▶9월 6일(목) 낮 12시, 연중 제 22주간 목요일
▶9월 6일(목) 오후 8시, 연중 제 22주간 목요일

◉ 성시간

9월 6일(목) 오후 8시 미사 및 성체헌시

◉온타리오 신앙대회

일시 : 9월 13일(목)-15일(토)
장소 : 13일, 14일 (예수성심성당에서 특강)
15일 미들랜드 성지 파견미사 및
김대건신부 부조상 제막식
강사 : 배영진(야고보)신부 ·인도출신
시간: 13-14: 7시 미사, 10시 강의마침
15일 :11시 30분 묵주기도
12시미사 / 1시30분 부조상 제막식
참가신청 : 선교부장님
참 가 비 : $ 30

2007년 8월 헌금 내역

주일헌금 : $2,714.57
교무금 : $720.00
성전건립 : $20.00

총 액 : $3,454.57

2007-35 2007. 9. 2.

연중 제 22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례

해 설 이명희 **차주 해설** 박명옥

화 답 송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가련한 이를 위하여 자비로이 집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47) 형제여 손을 들어
봉 헌 (206) 성심의 사랑
성 체 (188) 천사의 양식
퇴 장 (283) 순교자 찬가

	독	서
9월 2일	석광원	석호영
9월 9일	김현태	김진선
9월 16일	김용하	김희선
9월 23일	고덕근	고세형

	봉	헌
9월 2일	신상우	신계연
9월 9일	석광원	석호영
9월 16일	김현태	김진선
9월 23일	김용하	김희선

2007년 8월 26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593.50
교무금 :	$ 275.00
Total:	$ 868.50